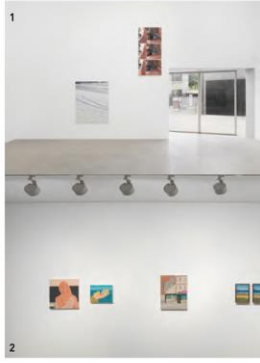


삶을 이해하게 하는 회화의 힘

July 2025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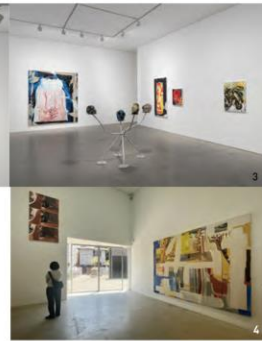
Exhibition in Focus



삶을 이해하게 하는 회화의 힘 #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 국제갤러리 K1, K3

A가 그리는 그림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회화'나 '미래의 회화'에 대해 궁금해진다. 디지털 회화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수중역적 감각을 경험하고,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술을 그리워할 게 분명하다. 1980년대 초·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작가 고희아, 김세은, 유신애, 이은새, 전병구, 창이지 작가의 이에 응답했다.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에서 작가들은 각각 회화 매체 특유의 느린 시간성과 물질성에 주목해 '밀레니얼 세대의 회화'는 디지털 이미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우리에게 제시되는 작업의 최종 귀결은 여전히 물리적 사물이자 형상임을 보여준다.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년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들을 모아 기획하는 전시 〈젊은 모약〉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고희아(b. 1984) 작가는 일상의 사기들을 화면에 끌려주는데, 화면 속 풍경이 마치 작가의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일기장처럼 보인다. 역동적인 도시라는 공간을 본인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표현하는 김세은(b. 1989) 작가는 도시의 변화하는 풍경을 순간 포착하는 듯한 시선으로 '도시의 시간'을 화면에 붙잡아둔다.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에 체류했던 이은새(b. 1987) 작가의 회화는 작가의 예나지자 그대로 느껴질 만큼 풍경이나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목, 타박산, 상처부터 남은 음식, 부스러기 등 화면에 부딪히거나 미끄러진 듯 흐릿한 이미지를 수직하고, 심지어 표면 아래 착륙이나 본노까지 회화로 표현할 만큼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스위스 베른 응용과학기술대학 현대미술과를 졸업한 뒤 유럽에서 활동을 시작한 유신애(b. 1985) 작가는 마치 도에가처럼 장난 장난이 배어 있는 고전적 화풍을 추구한다. 창이지(b. 1994) 작가는 직접 본 풍경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백하게 화폭에 담아내는데, 스냅사진 같은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한번 더 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으로 바뀐다.

전시명 〈Next Painting: As We Are〉 전시 기간 7월 20일까지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K1, K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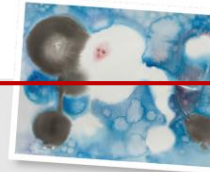
1, 4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에 참여한 창이지 작가 작품과 김세은 작가의 작품이 보이는 전시장 모습. 2 도시 회화에 대해 고민한 젊은 작가들은 가장 오래된 매체인 회화의 물질성과 역사성에 대해 각각의 수중역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했다. 3 이은새 작가의 회화와 설치 작품은 사물에 대한 작가의 내밀한 세상을 보여준다. ※ 1, 2, 3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1 우주 깊은 소피아 미츨라 전시. Photo by 고희아. 2 소피아 미츨라의 영상 작업의 한 장면. 3 소피아 미츨라가 창조해낸 신화적 동물의 이미지 세계 Astropoodles(2025). Watercolor on paper, 56x75cm, ※ 2, 3 이미지 제공, P21

모두의 '몸'이 숭배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순간 #소피아 미츨라 〈Astropoodles〉 P21

소셜 미디어를 타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몸'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몸'이요를 누른다. '수많은 몸'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몸'에 대한 자유로움을 선언하는 작가 소피아 미츨라(Sofia Mitsou, b. 1992)는 모든 몸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나고 자라 최근에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피아 미츨라의 한국 첫 개인전 〈Astropoodles〉, 몸 흐르듯 유연하고 성별과 시대를 넘나드는 몸, 먼 미래에서 도착하게 되고 그녀가 태어난 지 100년 후인 2100년쯤에 기록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페르소나인 'Astropoodles(그리스어로 '별'을 뜻하는 Astro와 Poodle을 결합한 단어로 작가의 창조해낸 세계)부터 우주의 요염한 여성, 공상 과학 속 목욕하는 요정, 우주로 뛰어오르는 푸들 등을 상상하여 유머러스하게 신체를 변형했다. '미츨라의 작업은 구스타프 클림트, 페르디난드 폰 슈테른,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 권능적인 인체 표현의 회화에서부터 존 갈리아노의 퀘이비 스타일, 타미라 드 캠프카의 아르데코 미학, 1980년대 플레이보이, 일본 에니메이션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 문화에서 영감을 받는다.' 박신영 큐레이터의 설명처럼 소피아 미츨라는 신화적 모티브부터 현대적 아이콘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한다. 다양한 신체는 종종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변신을 앞둔 찰나의 순간에 놓여 있기도 한데, 모두 해방된 듯한 포즈를 하고 있다. 소피아 미츨라는 "욕망하는 몸, 욕망 받는 몸으로 살아간다는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몸을 투영하고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인간의 차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소피아 미츨라가 전하고자 한 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몸에는 아름다움이 기억과 욕망이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전시명 〈Astropoodles〉 전시 장소 P21 전시 기간 7월 1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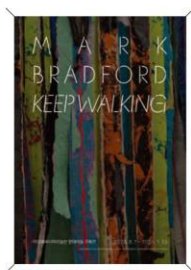
시간의 흔적을 아름답게 새기기 #그룹전 〈Tenses〉 갤러리 휘슬

"베르그송(프랑스 철학자) 같은 이는 시간을 순간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실의 흐름과의 연관성에 입각해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시간이란 단순한 양적 개념이 아닌, 내적 경험의 질적 측면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우 큐레이터가 쓴 전시 서문처럼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사색을 위한 전시 〈Tenses〉에서 만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여름의 나른함을 단숨에 날릴 만큼 윤택 있고 낭만적이었다. 김세은(회화), 김유재(사진), 로와정(설치), 문이새(조각), 한우리(영상) 등 5인의 작가의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미술이라는 매체가 시간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혹은 연장하는가, 확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신화에 기반한 서사를 영상으로 만들어내고 리얼리티의 디지털 패션을 내보내는 방식, (사내에 천국의 할아버지 알프레도와 토토가 생각나는 영상)을 그대로 노출하며 아름다운 화면을 리드미컬하게 만들어낸 한우리(b. 1986) 작가의 작품은 알 수 없는 미래 세계와 과거의 노스탤지어 사이 어디가를 연결하여 시간의 감각을 동원적으로 느끼게 한다. 실제로 자신이 흙과 퇴적물을 수집하고 이를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문이새(b. 1986) 작가의 조각은 작가가 경험한 시간들을 그대로 눈앞에 펼쳐놓는다. 한강을 거닐며 채집한 흙과 퇴적물을 재료로 조각하는 등 작가의 사소한 경험은 기념비적인 조각이 된다. 항상 여정이 시작된 여운을 주는 로와정(b. 1981) 작가는 이번에도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을 만들어냈다. 패널에 새긴 'poetic'이라는 글자가 점차 흘러진 검은 자국으로 변화하는 실의 흔적을 아름답게 새기며, 현재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가만히 응시하게 만든다. 형태가 없는 과거라는 무정형의 덩어리에 프레임이 주어 잠시 고정시키는 것. 로와정 작가의 '회상'이다.

전시명 〈Tenses〉 전시 장소 갤러리 휘슬 전시 기간 7월 5일까지 글 김수현프리랜스 에디터



1 문이새 작가의 '물' 53(2025), 조형도, 한강에서 수집한 흙과 나무, 유리로 만든 유약, 1.250x 소성, 175x43x38cm. Photo by 고희아. 2 한우리 작가의 '모바일(Portable Version)'(2025), OLED 패널, 물(흙과 퇴적물과 회로류), 5분 30초, 7면 설치, 이미지 제공, 김세은



이미지 제공,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Mark Bradford: Keep Walking)

도시의 혼적, 사회의 균열을 캔버스로 옮겨온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의 국내 첫 개인전. 광고지, 포스터, 산업용 종이 등 도시의 부산물들 여러 겹 붙이고 끌어내는 독자적 기법을 통해, 브래드포드는 도시 공간에 축적된 시간과 권력의 구조를 추적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약 4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모인다. 전시 기간 8월 1일~2026년 1월 25일 문의 apma.amorepacific.com



이미지 제공, 유자문 산

▲ 유자문 산 (앤토니 곰리 개인전 (DRAWING ON SPACE))

유자문 산이 영국 조각가 앤토니 곰리(Anthony Gormley)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을 선보인다. 인간, 신체, 공간의 관계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그는 조각, 드로잉, 설치 작품 등 총 48점을 통해 사유와 감각이 교차하는 조형 세계를 펼쳐낸다. 특히 곰리의 안도 다다오가 함께 설계한 공간 'GROUND'가 이번에도 처음 공개돼, 자연과 예술, 건축이 섬세하게 맞닿은 풍경 속에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다. 곰리는 이번 전시를 '물리적 공간과 상상적 공간이 만나는 지점'이라 말하며, 그 접점에서 관람자가 자기 몸과 감각으로 공간을 다시 읽어보길 제안한다. 전시 기간 11월 30일까지 문의 museumsan.org



최만경, 'Sleepless Nights', 라면에 유채, 130x170cm, 2025. 이미지 제공, 갤러리 바톤

최만경은 1980년대 한국추상미술의 대표 작가

Remember the EXHIBITION

“말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영국의 저명한 미술비평가 존 버저는 이렇게 말했다. 전시는 바로 그 ‘보기’라는 가장 직관적 행위를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방법이다. 올여름, 국내 아트 신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동시대를 다채롭게 비춘다. 몇 세기를 건너온 회화부터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한 조형 작업까지, 각 전시는 서로 다른 감각과 시선으로 ‘오늘의 미술’을 제한한다. 무엇보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거장들의 전시가 예고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시선으로 예술을 들여다보길.



이불, '나의 거대서사: 바위에 초조하다', 2005. 이미지 제공, 리움미술관

▲ 호암미술관 (루이즈 부르주아/ 리움미술관 (이불 개인전))

오는 8월 30일, 호암미술관에서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개인전이 열린다. 거대한 거미 조각 ‘엄마’와 ‘밀실 제초상’은 물론,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초기 회화 등 주요작을 특별히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리움미술관이 홍콩 영률라스(M+) 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이불 작가의 대규모 서해이 전시를 개최한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 유토피아적 모더니티, 인류 문명의 진보에 대한 탐구를 이어온 그의 작업 세계가 다시 한번 대중과 마주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8월 30일(리움은 9월 4일부터) ~2026년 1월 4일 문의 leumhoam.org



© SONGJ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 제공, 송준

▲ 송은 관아빌 개인전 (피버 아이)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1회 송은미술대상 수상 작가 권아람은 개인전 (피버 아이)에서 이 질문에 시각적으로 응답한다. 영상, 설치, 사운드 등 넘나드는 작업으로 동시대 시각 시스템의 과열과 역점을 조명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조형 언어로 엮는다. 신작 ‘피버 아이’(2025)는 3층 전시장을 LED 패널로 감싼 대형 설치 작업이다. 강렬한 붉은 빛의 광택이 화면은 잠시 기술을 환기하며, 그로 인해 파생된 불인과 감각의 혼란을 표현한다. 전시 기간 8월 9일까지 문의 songeun.or.kr

▲ 갤러리바톤 (최만경 개인전)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최만경이 국내 두 번째 개인전으로 갤러리바톤을 찾는다. 지난해 스페이스K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몽환적 풍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번 전시에서 미지의 숲을 배경으로 한 회화 신작 10여 점을 통해 한층 깊어진 사상을 펼친다. 최만경의 화풍에는 현실과 환상, 자연과 인간, 도시와 신화가 겹겹이 교차해 흐른다.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에서 출발한 이미지는 초자연적인 풍경을 드러내며 관람객을 상상의 장면 속으로 이끈다. 전시 기간 7월 7일~9월 9일 문의 gallerybaton

▼ 부산현대미술관 (힐마 아르 클린트: 적절한 소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선과 색, 상징으로 인간과 우주의 질서를 시각화한 작가, 스웨덴 화가 힐마 아르 클린트(Hilma af Klint). 하지만 오랫동안 잊혔던 그녀의 작품이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본격 조명된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규모 회고전은 1백40여 점에 이르는 회화와 드로잉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했다. 삶의 10단계를 추상적으로 재현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회화’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19일~10월 26일 문의 busan.go.kr



힐마 아르 클린트, 'No. 15, 진해', 그룹 VI, WUS/탈라성 연직, 캔버스에 유채, 99x130cm, 1908. 힐마 아르 클린트 재단 제공, Hak 083.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 다뮤지움

(취향가옥 2: Art in Life, Life in Art 2)

‘일상과 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이라는 참신한 기획으로 주목받았던 다뮤지움의 전시 (취향가옥)이 더 다채로운 컬렉션과 함께 시즌 2로 돌아왔다. 백남준, 이우환, 올라무르 엘리아슨 등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부터 앙성진, 이재하 등 신진 작가가 제작한 가구와 전통 공예품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이마상으로 가득 채웠다. 개인 컬렉터들의 미공개 소장품 6백여 점도 더해져,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취향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 2026년 2월 22일까지 문의 daemuseum.org



이미지 제공, 다뮤지움



론 뮤익, '자신 / 맨', 혼합 재료, 86x140x80cm, 2019. 크라이스트지치 아트 갤러리 테 워너 오 와이테루 컬렉션, 아모레퍼시픽 뉴질랜드.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조선 전기는 새 나라의 기틀과 함께 우리 문화의 토대가 형성된 시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시기의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를 개최한다. 도자, 서화, 불교미술 등 총 6백여점의 유물을 통해 조선 전기 2백여 년의 미술 창수를 집대성한 자라다. 한편 같은 기간, 특별전시실2에서 열리는 (마나 오마나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는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마련된 전시로, 오세아니아인의 신화와 전통이 깃든 조각과 공예품을 소개한다. 전시 기간 8월 31일까지 문의 museum.go.kr



최수진, 'Nightfall Echoes', 캔버스에 유채, 2273x1818cm, 2025. 이미지 제공, G 갤러리

▲ G 갤러리 (The Mutable Line)

익숙한 경계를 의심하고, 새로운 감각을 제안하는 여성 작가들의 전시이 되었다. G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룹전 (The Mutable Line)에서는 이혜만, 최수진, 카밀라 알베르티 작가가 자연과 인간,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사유하며 완성한 회화, 설치, 오브제 작업을 선보인다. 이혜만은 DM2에서 받은 인상을 시각화하고, 최수진은 단편적 기억을 감각적 풍경으로 풀어냈다. 카밀라 알베르티는 자연물과 폐기물을 결합한 조형 작업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 기간 7월 26일까지 문의 ggallary.kr

▲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공동 주최한 호주 조각가 론 뮤익(Ron Mueck)의 개인전이 막바지를 향해고 있다. 정교한 인체 조각으로 현대인의 자화상을 구현해온 작가의 대표작 24점을 통해 현대 조각의 흐름을 살펴본다. 개막 이후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한 이번 전시는 스튜디오 사진 연작과 다매체로 함께 소개하며, 외로움과 불안,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한편 과천관에서는 해외 뉴미디어 소장품을 소개하는 (아더랜드 5: 와열 시), 아크릴 타타라전지 8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기간 7월 13일까지 문의 mmca.go.kr